



타이거즈와 동행... 144번의 환희·눈물·감동

숫자로 본 2016 시즌

144경기의 대장정이 펼쳐지는 프로야구 그라운드에는 많은 이야기와 기록이 쓰여진다. 진한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된 KIA 타이거즈의 2016시즌을 숫자로 돌아본다.

1 9월21일 넥센과의 홈경기. 5-2로 앞서 9회초 2사 2루에서 심동섭은 공 하나로 서진장을 2루수 땅볼로 돌려세우고 최소(1구)투구 세이브를 기록했다. 통산 39번째. 한승혁은 데뷔 6년 만에 첫 세이브를 올렸다. 9월10일 NC전에서 7-4로 앞선 9회초 1사 만루에 임창용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이 테이츠를 유격수 플라리로 처리한 뒤, 지석훈을 3루수 땅볼로 잡으며 극적인 순간 생애 첫 세이브를 장식했다. 김주찬과 헥터는 구단 최초의 기록에 이름을 남겼다. 김주찬은 4월15일 넥센전에서 타이거즈 역사

5년만에 가을야구...김주찬 타이거즈 첫 사이클링 히트
헥터·양현종 200이닝 소화...이범호 첫 30홈런-100타점
관중 77만3499명 목표 초과...곽정철 1792일만의 세이브

상 첫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됐다. 8월11일 넥센 원정에서는 시즌 1호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었다. 헥터는 5월14일 한화전에서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최초의 무사사구 완봉승을 기록했다. 신인 정동현은 6월10일 삼성을 상대로 고졸 첫 선발등판 승리투수가 됐다. 2002년 김진우에 이어 처음이다.

5 2016시즌 가을은 KIA로 뜨거웠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순위 싸움을 전개하면서 LG의 4위 자리를 노려왔다. 하지만 삼성과의 홈 최종전 3-4 패배로 KIA의 4위 도전은

무산,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5할' 징크스를 넘지 못한 KIA의 최종성적은 70승1무73패(승률 0.490). 하지만 KIA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가을잔치의 꿈을 이루면서 뜨거운 가을을 보냈다.

100 지난해에 비하면 매서워진 창이었다. 그 중심에는 '클린업 트리오' 김주찬-나지완-이범호가 있었다. 아쉽게 나지완(90타점)이 시즌 마지막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동반 100타점은 무산됐지만 이범호와 김주찬은 생애 첫 100타점 고지를 넘었다. 이범호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30홈

런도 채우면서 '30홈런-100타점'의 활약을 해냈다. 김주찬의 질주도 계속됐다. 통산 5번째 50 3루타를 시작으로 250 2루타, 1400안타, 800득점, 2100루타, 100홈런, 5000타수 등 자신의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한화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대타 스리런과 함께 101타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생애 첫 100타점의 꿈도 이뤘다.

200 마운드에는 '원투펀치' 헥터와 양현종이 있었다. '특급 외국인 선수' 헥터는 목직한 피칭을 이어가면서 200이닝의 목표를 이뤘다. 지난 2일 kt와의 시즌 마지막 등판을 완투승으로 장식하면서 15승과 200이닝(206.2이닝)을 동시에 채웠다. 키퍼와 리오스에 이어 세 번째로 15승-200이닝을 기록한 외국인 투수가 됐다. 양현종도 헥터에 이어 동반 200이닝을 이뤘다. 3월 kt전에서 타이거즈 좌완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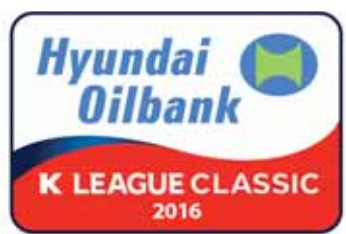
첫 3년 연속 10승과 함께 2007년 류현진에 이어 처음 200이닝(200.1이닝)을 찍은 토종 투수가 됐다. 두 선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1·2차전 선발로 나서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투수로의 위용을 과시했다.

1792 감동적인 복귀 소식이 이어진 2016시즌이기도 했다. 곽정철이 스타트를 끊었다. 곽정철은 4월2일 NC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4-3, 1점 차 승리를 지키며 1792일 만의 세이브라는 감격을 누렸다. 또 다른 '아픈 손가락' 한기주도 4월15일 넥센전에서 1401일 만에 세이브를 작성한 뒤 4월23일 롯데 원정에서 1668일 만에 선발승을 거뒀다. 또 4월29일에는 3557일 만에 5.2이닝 이상 투구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 우여곡절 고향으로 돌아온 임창용은 7월7일

kt 원정에서 타이거즈 선수로 6493일 만에 세이브를 올렸다. 7월13일 SK홈경기에서는 6502일 만에 타이거즈의 승리투수가 됐다.

773499 144경기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까지 팬들의 따뜻한 '동행'도 이뤄졌다. 올 시즌 KIA의 안방인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총 관중은 77만3499명. 지난 시즌 75만1306명을 넘어 올 시즌 목표 관중이었던 75만6000명도 돌파했다. KIA팬들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잠실 구장 원정석과 외야 3루 쪽까지 가득 채우면서 열정적인 '10번 타자'로 가을 잔치에 함께했다. '감동의 질주'를 한 김주찬 등 KIA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하며 팬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2년 연속 클래식 잔류 도전



16일 수원FC 원정경기
승리하면 잔류 안정권
복귀 정조국 득점왕 도전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향한 광주 FC의 도전이 시작된다.

광주 FC가 16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와 2016 K리그 클래식 3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스플릿 라운드 일정의 시작이다.

광주는 지난 2일 FC 서울과의 정규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0-2패를 기록, 승점 1점 차이로 6위에까지 자리가 주어지는 상위 스플릿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렸던 광주는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잔류 목표를 수정했다.

7일부터 12일까지로 구성된 하위 스플릿 팀은 앞으로 5경기를 더 치르면서 강등 전쟁을 벌인다. 최종 12위는 K리그 챌린지(2부리그)로 자동 강등되며, 11위

는 K리그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와 잔류를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성남 FC,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 승점 41점을 기록하고 있는 9위 광주는 수원 삼성(승점 37점),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5점), 수원 FC(승점 33점)에 비하면 강등 걱정에서 한결 여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아직 잔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발이 중요하다.

첫 상대인 수원 FC는 광주와 승점 8점 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한다면 승점은 11점 차이를 벌여지게 된다. 이후 남은 4경기에서 광주가 전패를 하고, 수원 FC가 전승을 해야만 뒤집을 수 있는 수치다. 사실상 자동 강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여기에 같은 날 치러지는 성남과 인천의 경기에서 성남이 승리를 하면 광주의 남은 경기도 수월해진다.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 광주가 이기고, 인천이 질 경우 두 팀의 승점은 9점 차가 된다. 이렇게 되면 광주가 남은 경기에서 1승을 하거나, 인천이 2패를 할 경우 광주의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잔류가 이뤄진다.

광주는 올 시즌 수원 FC와 3차례 만나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 졌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거두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든든한 지원군이 대기하고 있다. 발목부상으로 한 달 여 동안 그라운드에서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패트리엇' 정조국이 복귀 준비를 끝내고 수원으로 향한다.

팀의 클래식 잔류를 위해 출격하는 정조국은 득점왕 군기에도 들어간다. 부상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정조국은 16골로 여전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돌아온 정조국이 클래식 잔류와 득점왕을 위한 복귀 골을 터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슈틸리케호, 내달 15일 서울서 우즈베크와 2위 싸움

러월드컵 2차 최종예선 5차전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진출의 분수령이 될 다음 달 우즈베키스탄 경기 장소가 결정됐다. 대표팀은 11월 1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A조

에서 이란, 우즈베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월드컵 본선진출 직행은 2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우즈베크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2승 1무 1패 승점 7, 득실차 1을 기록하고 있다. 우즈베크는 3승 1패 승점 9, 득실차 3을 기록 중이다. 대표팀은 총 6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 중 2경기가

우즈베크전이다. 우즈베크 2차전 원정경기는 최종전(2017년 9월 5일)로 잡혀있다.

한국 대표팀은 우즈베크와 A매치 맞대결에서 13번 싸워 9승 3무 1패를 기록했다. 1994년 10월 13일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0-1로 패한 뒤 22년 동안 패한 적이 없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신인상 좌절

5차례 톱10·상금 308만달러

한국 프로골프의 '영건' 김시우(21·CJ 대한통운)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 수상이 좌절됐다.

PGA 투어 사무국은 12일(현지시간) 2016 시즌 '올해의 신인'에 에메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김시우는 그리요, 스마일리 코프먼(미국)과 신인왕 3파전을 벌였으나 어렵게 한국 선수 첫 수상을 놓쳤다.

PGA 투어 '올해의 신인'은 2015-2016 시즌 상금이 걸린 15개 대회 이상 출전한 PGA 투어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지난 2015년 PGA 투어 사무국은 이날 수상자를 발표했다.

그리요는 2008년 안드레스 로메로에 이어 아르헨티나 선수로는 두 번째로 이상을 받았다. 또 2011년 고교생 돌풍을 일으킨 선수 중 조던 스피스(미국·2013년), 대니얼 버거(미국·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신인왕에 선정됐다.

그리요는 2015-2016시즌 개막전이던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재미동포 케빈 나를 꺾고 우승했다. PGA 투어 선수로 출전한 첫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기는 라셀 헨리(2013년)에 이어 2년 만이었다. 그리요는 한 차례 준우승을 포함해 세 차례 톱 10을 달성했다.

그리요는 2008년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한 김시우는 준우승 1번과 5차례 톱10 진입 성과를 냈다. 상금은 308만6369달러를 획득했다. 김시우는 PGA 투어 사무국의 출전 선수 자격에 따라 내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US오픈,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 등 4대 메이저대회에 모두 출전한다.
/연합뉴스